

도서관 收書운동을 보는 착잡함

전국 각급 도서관에서 도서기증운동이 한창이다.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는 것인데, 해당 지역 출신 인사들은 물론 학교도서관에서는 학부모와 동문들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기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법도민 도서 10만권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기증도서를 보내 317개 새마을 문고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알려진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각 시 군 교육청, 새마을운동 지부 등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收書운동'으로 불리지는 이 기증운동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것인가는 선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목소리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라 도서관의 서가는 그만큼 빈 공간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책의해에 치러지는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도서관 장서의 실상을 공개해 그 심각성을 국민에게는 물론 정부에 '시위'하는 것이다. 물론 이 상징적인 운동의 목표는 예산증액이다.

많은 도서관 관련자들은 도서관 증설에 앞서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의 시설보완, 특히 장서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책이 없는 도서관에 이용율이 증가할 리가 없고, 그나마 찾아온다고 해도 도서관의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람실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도서관을 시험공부용 독서실로 전락시킨 주범은 턱없이 모자라는 도서관 장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의 올해 도서관 정책에 장서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 일간지에 실린 지방 문화 소식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광주시내 5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한 곳만이 겨우 법정장서량인 9만권을 겨우 넘기고 있고 나머지는 그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올해 장서구입예산마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거나 동결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책이 없는 도서관은 이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책의해에 책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지금, 수서운동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 정소연 기자

출판저널

통권 126호 / 1993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憲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鏤

임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權寧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復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吳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履 | 安秉水 |
| 安輝禧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璟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映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靚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慶鍾 | 鄭雲映 | 鄭晉錫 |
| 鄭鎭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震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彦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서구명저전집」 편집에 참여 색인 '신토파콘' 작성을 담당했고, 「독서술」의 저자이기도 한 모티머 J. 에들러와 출판인 출신 찰스 벤 도런의 공저 「독서의 기술」(민병덕 옮김, 범우사)은, "책을 읽고 있거나, 앞으로 읽을 사람을 위한" 독서의 규칙과 태도를 서술한 책. 독서론이면서 독서술로 읽히는 이 책은, 초급독서와 점검독서 분석독서로 독서방법을 나누고 있는데, 바른 책읽기의 길을 일러주고 있어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분류의 중요성

"독자는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은 빠를 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읽기 시작하기 전에 아는 편이 낫다."

이것이 분석독서의 제1규칙이다. 예를들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소설·희곡·서사시·서정시 등의 픽션인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는 '교양서' 인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픽션에 속하는 것은 대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필립 로스의 「포드노이의 불만」은 소설인가, 아니면 마약의 남용을 경계하는 팸플릿으로써 일찍이 열렬히 알콜의 해독을 설명하여 민중의 선도에 노력한 책과 같은 성질의 것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인가,

아니면 남북전쟁 당시 및 그 이전의 남부의 역사인가? 「분노의 포도」는 문학의 장르에 속하는가, 아니면 농민의 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인가?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모두 소설로서 베스트셀러 목록의 픽션부에 들어 있다. 그러나 표제만 보고서는 과연 소설인지 사회학 책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현대의 소설 중에는 사회학이 상당히 섞여들어 있으며 사회학에도 허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를 갈라놓기는 매우 어렵다. 자연과학쪽에서는 「안드로메다 병원체」라든가, 로버트 하인라인이나 아더 C. 클라크의 소설에는 과학이 나온다. 「아인슈타인과 우주」는 픽션은 아니지만 읽기 쉽기로는 소설에 못지 않다. 말하자면 포크너의 소설보다는 훨씬 읽기 쉽다.

「교양서」란,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의 전달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책을 말한다. 여러가지 의견·이론·가설·사고를 기술하고, 그 진리성을 주장하는 책은 모두 이 의미에서 교양서이다. 픽션과 마찬가지로 교양서도 대개는 한눈에 그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논픽션과 픽션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서 중의 여러가지 종류를 분간하는 일이다. 어떤 책이

가장 알기 쉽고,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어떤 부문의 책으로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를 아는 일이다.

역사와 철학에서는 지식의 내용도, 가르쳐주는 것도 다르다. 물리와 도덕에서는 다루는 문제가 다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분석독서의 제1규칙은 모든 책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논픽션이나 '교양서'에 알맞다.

그러면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의 종류를 안다"는 이 규칙의 마지막 사항은 어떻게 해서 지켜야 좋은 것인가? 우선 '점검독서'를 하는 일이다. 좌우간 책을 대충 살펴보는 것이다. 도서명·서브타이틀·목차를 읽고 저자의 서문이나 일러두기·색인을 훑어본다. 출판자가 쓴 소개문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읽는다. 이것들은 저자가 독자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신호이다. 독자가 그것에 따라, 멈추고 보고 듣고 하지 않는다면 나쁜 것은 독자쪽이지 저자가 아니다.

도서명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러한 신호에 주의하지 않는 독자는 의외로 많다.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러한 경험을 몇차례나 하게 된다. 이 책은 무엇에 대해 말하

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책인가 알기 쉽게 말해보라고 학생에게 말한다. 이러한 질문은 한편의 책에 대하여 논하려고 할 때에 좋은 계기를 만들며, 필요불가결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1859년, 다윈은 한편의 유명한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진화의 이론에 관한 것으로서, '種'이란 말이 도서명 가운데 있다. 이 책의 올바른 도서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가지 종의 기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지만, '특정의 종의 기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사실 25명 정도의 꽤 독서가라고 생각되고 있는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이 책의 책이름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책을 한번도 읽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인종의 발달에 관한 책인 줄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체는, 「종의 기원」의 주제는 책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자연계의 식물이나 동물의 무수한 종은 원래 소수의 종을 기원으로 하여, 주로 자연선택의 원칙에 의해서 증식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책의 이름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정말로 주의깊게 표제를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